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업체 관계자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해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들 차량은 광주 8곳, 전남 12곳의 지역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출신 대선후보 캠프 누가 뛰나 박, 이정현·이상일·이성현 문, 이낙연·이학영·박광온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7일부터 공식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두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광주·전남 출신 주요 인사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측 모두 이번 대선에서 호남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표심을 겨냥한 이들 주요 인사의 역할과 행보는 대선에서 호남득표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캠프=박 후보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공보단장(곡성), 기자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 합류한 이상일 대변인(함평), 박 후보가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성현 국민소통본부장(영광)이 호남 인맥의 주축이다. 광주 출신 심재철 선대위부위원장과 순천 출신 김경재 기획특보도 선대위에서 핵심 자리를 맡았다.

정책팀의 핵심인 선대위 행복추진위원회의 김광두 교수는 힘찬경제담당을 맡아 박 후보 경제정책을 입안해왔다. 또 윤종록 창조경제담당, 김재춘 교육공약담당도 광주·전남 출신이다. 농림부차관을 지낸 정승광주 시선대위위원장, 유수택 광주시장위원장, 주영순 전남도당위원장도 현장에서 호남득표율 견인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캠프=선대위위원장단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안철수 캠프 측과 통합선대위를 구성

박근혜 캠프
이정현 이상일 이성현 심재철 김경재 김광두 윤종록 김재춘 김영식 유수택 주영순

문재인 캠프
이낙연 이학영 박광온 우윤근 강기정 이용섭 정동채 장병완 정찬용 신계륜 이해명

하더라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MBC 앵커출신인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 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윤근 의원이 동행1본부장(조식), 강기정 의원이 동행2본부장(직능), 이용섭 의원이 공감1본부장(경제공약), 정동채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정책특보 실장으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은 정부특보, 신계륜 의원은 후보 특보단장을 각각 맡고 있다.

실무급에서는 강진 출신 이창우씨가 일제기획팀장으로서, 구례 출신의 김재두씨는 부대변인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시민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인사로는 문용식·이용선 공동선대위원장, 문태홍 상황실장, 이해명 조직지원단장, 시사만화가 백무현 대변인 등이 있다.

광주·전남 시민캠프에서는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삼호 전 청와대 행정관,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에서 활동했던 김정현, 김영근 부대변인도 26일부터 캠프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안 주중회동...국민연대 순항할까

문, 양 세력 묶어낼 대통합 선대위 추진 안, 캠프 해단식 연기 '지방행' 길어질듯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설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 입장에서는 안 전 후보의 지지층으로 대별되는 중도·무당파층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동층으로 돌아

가면서 안 전 후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 전 후보는 26일 사흘째 지방에서 휴식하며 향후 구상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져, 상경 이후에야 향후 행보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27일 예정된 선거캠프 해단식 참석을 위해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단식 자체가 연기되면

서 지방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후보의 지원 시기와 폭은 문 후보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가 정치쇄신 실행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때 안 전 후보가 지원에 나설 명분을 갖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가 당장 문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더라도 일단 두 사람간 주중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안 전 후보 측에 회동시기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 인사는 "이르면 이틀수십 좋지만 안 전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예우

를 갖추면서 만나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전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도 "서로 미룰 수는 없는 만큼, 금주 중 만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같은 회동 후 안 전 후보 측은 주말 팀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문 후보 측 지원 방향 등 진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그 방법은 '국민연대'라는 틀 속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국민연대가 양 세력을 이타 없이 하나로 묶어내느냐 여하에 따라 본선 승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대선 승리를 위한 공조'와 '정권교체 이후의 연대·협력 지속'의 원칙을 재확인한 새정치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 캠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제2의 '대통합 선대위'와 이에 따른 공동선거운동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변인단도 양 캠프 인사가 나란히 참여하는 공동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바다 조사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대의 안착을 통해 공동정부를 포함, 대선 후 연대할 틀거리의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문 후보 측 '담쟁이 캠프'와 안 후보 측 '진심캠프'가 하나 되고 그 외의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함께하는 선대위를 구성해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권교체 후에도 함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황이 겹졌다

“범국민적 새정치위 만들자”

문재인 후보 사퇴 이후 광주 첫 방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청주에 이어 광주를 방문, 중원과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동시에 공략했다. 문 후보가 전동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광주로 향할 때에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이후 늘어나는 부동층과 동의하는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5·18 국립묘지를 방문, 방명록에 '오늘의 광주 정신은 새 정치입니다'라고 적은 뒤 묘역 참배를 참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을 기다리던 1000여명의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의

뜻을 이어 실천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이어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묘역을 다시 한번 참배하고, 광주정신을 되새기며 대선 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주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정권교체뿐만 아닌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이루고 다 함께 열망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호남 민심을 의식한 듯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데 대해 뼈아픈 성찰을 하

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진 국가균형발전을 되살려야 지방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를 하면 '영남정권'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역균형인사, 탕평인사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며 "매 분기별로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지역균형인사 실행을 발표해 인사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미안할 속내도 내비치며 안철수 후보 측을 포함한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범국민적 새정치위원회'구성도 제안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DAEMYUNG RESORT NEWS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지금이 절호의 구입기회!"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개관기념 특별분양!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가 창립 33주 해 오너십 정회원권을 특별 한정 모집중이다. 출시한 특별상품은 정상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약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1/12지분 등기제 분양이므로 법적재산권을 보장 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가입 자격의 제한도 개년기명, 무기명 및 법인 업체 명의로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 직영 아쿠아월드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택으로 부여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전국의 대명리조트 10곳(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을 회원자격으로 별장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발디파크는 4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스키월드, 정규골프장C.C, 오션월드, 퍼블릭 9홀 골프장 등 각종 부대시설과 2,600여실의 국내 최대규모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대명레저산업은 맞춤형 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엄격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레저컨설턴트들로 하여금 최초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히 1:1 담당제로 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후가의 한가로운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계절이 함께하는 대명리조트에서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가족, 친구들과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대명리조트의 특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 | 변산

국내 최대규모 7,757실 · 전국 12개지역 직영 체인망

- 쉼비치 호텔 & 리조트,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비발디파크, 변산, 경주, 제주, 단양, 양평, 소노펠리체, 엠블호텔 여수
- 대명리조트 거제(517실 '13.6), 엠블호텔 킨텍스(377실 '13.3)

국제 수준의 사계절 리조트 [비발디파크]

- 골 프 장 : 비발디파크C.C(18홀) / 퍼블릭G.C (비발디파크 9H, 소노펠리체CC 18H '13.09 완공)
- 스키월드 : 11년~12년 시즌 국내 최대 스키 이용(88만명)
- 오션월드 : 세계적 수준의 워터파크 보유
- 숙박시설 : 국내 최대규모 숙박시설(2,600여실)보유

세계4대 워터파크 [오션월드]

- 총면적 117,604㎡규모의 초대형 물놀이 테마파크
- 2011년 신규 시설 메가슬라이드 존 오픈
- 세계최초 6인승 튜브 슬라이드 슈퍼라이드
- 국내최초 8레인 매트슬라이드 카이로 레이스
- 2.4m 파도풀(서핑마운트), 300m 익스트림러버, 300m 몬스터 블라스터
- 68도 6인승 슈퍼부레랑고, 6톤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대명리조트 맞춤형 멤버십 출시!

- 당산만의 명예로운 라이프스타일 VVP 프리미엄 리조트 멤버십 '노블리안'
-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한민국 대표 리조트 멤버십 '패밀리 · 스위트'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 쉼비치 호텔 & 리조트 · 엠블호텔 여수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변산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피인동, 베이풀동, 채리동, 노블리안동 · 유스호스텔 ·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 비발디파크 컨트리클럽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 소노펠리체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우리은행 1005 - 900 - 997807 ▶신한은행 295 - 05 - 061967 | 노블리안 납입계좌 : ▶신한은행 140 - 008 - 634503 | 예금주 : (주)대명레저산업

회원가입문의 **02)2052-0001**

지정계좌로 입금된 입금금만 유효합니다.

● 분양상담전화 ● 이안 및 후원도 상담합니다.